

# 지역민·경제단체·협력사 “노조 결단” 한목소리

### 기아차 62만대 증산 지역경제 살린다

### 협력업체 동반성장 광주 수출·고용 증가 기아차 사주기 등 ‘지역민 사랑’ 깊어아

#### 해 효과와 선결과제

4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62만대 증산 프로젝트에 대해 지역 경제계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대승적 협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15일 최중환 광주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박병규 기아차 노조 광주지회장을 만나 노조의 조속한 증산협의를 촉구하고, 62만대 증산 지연에 대한 지역여론과 경제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최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경제계와 지역민들은 기아자동차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기아차 사주기 운동 전개 등을 통해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왔다”며 “조속한 62만대 증산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간절히 염원하는 지역민과 지역경제계의 희망과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달라”고 노조의 협조를 구했다.

앞서 14일엔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광주공장 노조 사무실 앞에서 증산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고, 광주에서 열리는 경제인 간담회에서는 광주공장의 미뤄지는 증산 프로젝트 탓에 경영악화를 호소하는 중소기업인들

의 발언이 수 차례 나왔다.

지역민 대다수가 광주공장의 증산에 주목하는 것은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증산이 이뤄지면 지역 부품협력사의 동반성장은 물론, 지자체의 자동차 부품사 유치, 지역 수출증가 및 지표개선, 목포 신항만 물동량 증가 등 그 효과는 계량하기 힘들 정도다.

무엇보다 증산이 시작되면 가장 큰 수혜자는 광주 제조업 인원의 9%를 차지하는 광주공장 임직원들이다.

불과 15년 전인 1998년, 아시아자동차였던 기아차 광주공장은 트럭 및 버스위주의 생산으로 연산 6만대도 안산하지 못했던 경쟁력 없던 공장이었다. 직원들이 회사에 나와도 생산할 차가 없어 특근과 잔업은 고사하고, 정상적인 라인 가동도 힘들었다. 하지만 2002년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에서 소품종 대량생산체제로의 전환을 꾀하며 급성장했다. 라인 합리화 사업 이후 2010년 9월 광주공장을 연간 생산량 50만대 규모의 글로벌 공장으로 도약시킨 것은 광주공장 임직원의 노력이 컸다.

실제 기아차 광주공장은 당장 쏘울과 스포티지R, 올 뉴 카렌스, 봉고트럭 등 주물물량이 9만 여대에 밀려있

다. ‘잘 나가는 차종’을 주력 생산하고 있는 광주공장이 증산으로 경쟁력을 더해야 하는 이유다. 적체 물량을 해소하고 글로벌 수준의 규모를 갖춘 공장으로서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 엔저를 발판삼은 일본 차의 공세 속에 글



62만대 증산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장인 기아자동차 광주2공장 내부. 주문이 밀려 생산체제가 심각한 스포티지R의 조립이 한창이다.

로벌 시장의 점유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광주공장은 연산 6만대에서 50만대에 이르는 과정 속에 노사갈등이 존재했지만 그때마다 광주공장의 발전이라는 대전제 아래 위기를 헤쳐왔다. 특히 42만대에서 연산 50만대 재편사업에 이르는 과정에서 당시 부분규 분위기를 타고, 광주공장 노사는 2010년 6월 2공장, 9월에는 1공장 증산협의를 완료해 50만대 증산에 성공적으로 가동해냈다. 62만대 증산이

광주공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절호의 기회라면 노조 역시 대승적인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는 사례다.

H 협력업체의 한 임원은 “광주공장 노조는 스스로의 일터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며 “증산 성공이 곧 광주를 살린다는 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美일리노이공대 명예박사 학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9일 (한국시간)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공과대학(IIT)에서 명예 공학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효성 측이 전했다.

조 회장은 IIT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첫 한국인으로 기록됐다. 조 회장 개인적으로는 지난 2005년 일본 와세다대에 이어 해외 대학에서의 두 번째 명예박사 학위다. IIT 측은 조 회장이 타이

어코드, 스파덱스, 은행자동차기 부분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발판으로 효성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조 회장이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포함한 태평양경제협력회의장, 한미경제회의의 위원장, 한일경제협력회장을 지내며 국제 우호 증진에 이바지한 점도 배경이 됐다. /임동률기자 exian@연합뉴스

### 광주디자인센터 KDM 회원 18명 선발

#### 53명 지원 3대1 경쟁

(재)광주디자인센터가 19일 2013년도 코리아디자인멤버십(Korea Design Membership, 이하 KDM) 신규 회원 18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고 광주디자인센터가 운영하는 KDM은 호남·제주권 2년제 이상 대학의 디자인 전공 대학생 중 우수 인재를 선발해 글로벌 디자이너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이번 신규 KDM회원 모집에는 광주, 전남·북 대학생 53명이 지원해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1차 서류 심사와 2차 워크숍 및 실기를 거쳐 회원을 최종 선발했다.

광주디자인센터는 잠재력 있는 여

비디자이너를 선발하기 위해 창의적인 전형방법을 도입했다. 서류·포트폴리오 위주의 1차 전형을 거친 학생들은 1박2일간 주어진 과제의 수행과 워크숍 등을 통한 2차 평가를 거쳤다. 학생들은 각 조별로 광주 도심에서 재활동이 가능한 재료와 제품을 찾아 제품이 사용에서 버려지는 과정을 파악하고, 재활용 가치와 사용성을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 선발됐다.

신규 KDM 회원에게는 24시간 이용 가능한 개인별 창작공간과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영국 골드스미스대학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런던 디자인페스티벌(텐트런던)에 참가할 예정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여행객 불편 신고 예약취소·환불 늘어

여행 예약을 취소하거나 환불받기 어렵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여행업협회 여행불편처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여행객이 낸 불편 신고 1280건 가운데 취소 수수료 문제, 카드 결제 거부 등이 주를 이뤘다. 반면 가이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풀이됐다. /연합뉴스

증가한 수치다. 계약 취소와 관련한 불만 신고도 많아 171건(13.4%)으로 두번째였다. 전년과 견주면 51.3% 늘었다. 신고 내용으로는 여행사의 환불 거부, 취소 수수료 미지급, 카드 결제 거부 등이 주를 이뤘다. 반면 가이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풀이됐다. /연합뉴스

### 꽃보다는 의류·상품권

#### 부부의 날 선물 선호도 1·2위

“부부의 날, 꽃보다는 의류·상품권 선물하세요.”

부부의 날(21일)을 맞아 연인이나 중·장년층 부부는 선물로 의류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백화점이 지난 9일부터 이틀 동안 점포를 방문한 20~50대 기준 고객 1000명을 대상으로 선물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의류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은 상품은 상품권, 시계·보석 등이었으며 성별로 보면 남자는 의류, 여자는 상품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무인 인증’이라 할 수 있

는 커플의류와 커플속옷은 최근 가장 선호하는 품목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백화점 매장별로 남녀 각각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의 커플속옷을 선물상품으로 구성해 진전배치하고 있다.

강우진 롯데백화점 광주점 남성스포츠팀장은 “최근 의류와 속옷은 편안한 활동을 위한 기능적 부분뿐 아니라 필수 패션아이템으로 자리잡았다”며 “선물 받는 이들의 라이프스타일, 취미 생활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상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 에너지 공기업 취업문 크게 넓어진다

#### 한전·가스공사 등 29곳 작년보다 21% 늘려 올 4287명 채용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이 올해 채용을 대폭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29곳이 올해 작년보다 21.8% 늘어난 4287명을 새로 고용할 계획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2008~2012년 평균 신규 채용 규모(2053명)에 비하면 109%나 많이 선발하는 것이다. 전체 채용 인원 가운데 약 4분의 1인 1083명은 전문 직업 훈련을 받은 고졸 학력자를 선발한다. 한전은 에너지 관련 기관 중 가장 많은 규모인 818명을 뽑는다. 한국수력원자력 701명, 한전 KPS 325명, 한국남동발전 255명, 한국전

력기술 223명 등 100명 이상 대규모로 선발하는 기관이 14곳이나 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원자력·화력 발전소 건설·운영, 해외자원개발 사업 확대, 에너지 안전사고 대응 인력 확충 등이 대규모 인력 채용으로 이어졌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출로 운영·유지·보수 인력 등이 필요해지면서 한국전력기술·한국수력원자력·한전KPS의 채용도 증가한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기존 탐사·개발 사업이 생산단계로 전환하고 앞

로 운영권 확보 사업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전문인력 확보 차원에서 채용 규모를 대폭 키운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546회)		2등보너스 숫자
당첨번호	당첨금(원)	당첨자수
8 17 20 27 37 43		6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405,939,950	30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36,903,632	55
3 5개 숫자 일치	652,637	3,110
4 4개 숫자 일치	50,000	104,469
5 3개 숫자 일치	5,000	1,379,107

1 시공 전 / 2 단열배시트 시공 / 3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 4 시공 후

**특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트라이슈머**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하자없이 20년은 너뿐이 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2중단열 방수 | 천정 결로방지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태양열차단 | 냉기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C | 겨울철 실내온도 3~5°C

전기료 30~40% | 난방비 15~20%

냉방비 절감 | 난방비 절감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전속모델 탈런트 이영 후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

**[주]이파엘지 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ielysia**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우리 한 끼**

**YONAMJA**  
 STEAK / PASTA / PIZZA / BEER  
 E-mail : rsh3366@hanmail.net

16일 OPEN

광주 유·스퀘어점 062) 673-7979